

저나트륨혈증 환자의 임상 양상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황순오 · 최수정 · 김대용 · 박무용 · 김진국 · 황승덕

Clinical Aspect of the Hyponatremia

Soon Oh Hwang, Soo Jeong Choi, Dae Yong Kim, Moo Yong Pack, Jin Kuk Kim, Seung Duk Hwang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Soonchunhyang University Medical College

서론 : 저나트륨혈증은 임상에서 가장 흔히 발견되는 전해질 불균형의 하나로 매우 다양한 원인에 의해 나타나고, 임상 증상은 무증상부터 중추신경계의 손상까지 다양하며, 심한 경우는 영구적인 신경학적 손상이나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빠른 진단과 교정이 중요하여, 저자들은 저나트륨혈증의 임상 양상을 조사하여 그 원인 및 고장성 용액 사용의 유용성 등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방법 : 본 저자들은 2002년 2월부터 2007년 1월까지 전신 쇠약감, 의식 저하 등의 증상으로 순천향대학 부천 병원 신장내과에 입원한 혈중 나트륨 농도가 135 mEq/L 미만인 74명 (남자 20명, 여자 54명)의 저나트륨혈증 환자를 대상으로 후향적으로 내원 당시의 저나트륨혈증의 정도와 임상 경과를 분석하였다.

결과 : 74명 입원 환자의 평균 연령은 68.92±11.16세 (33-87세), 혈장 나트륨 농도는 113.62±6.92 mEq/L (96-129)이었다. 고혈압은 52명 (70.3%), 당뇨병은 26명 (35.1%)에서 동반되었으며, 65세 이상의 고령 환자는 51명 (68.9%)이었다. 이뇨제를 복용한 환자는 17명 (22.9%)이었고, 이 중 16명 (94.1%)이 dichlozide를, torasemide는 1명(5.8%)이 복용하였다. 입원 시의 의식 상태는 명료한 의식이 45명 (60.8%), 졸림 상태 20명 (27.0%), 혼미 상태 5명 (6.8%)의 순이었다. 중증 저나트륨혈증 (<110 mEq/L)은 18명, 중등도 (110-125 mEq/L)는 52명이고, 경증 (125-134 mEq/L)은 2명이었다. 저나트륨혈증의 교정에는 평균 1.82±1.65일 (0-13일)이 소요되었고, 28명 (37.8%)이 고장성 용액을 사용하였다. 고혈압과 이뇨제를 사용한 환자에서 저나트륨혈증이 더 빨리 교정되었으나, 당뇨병의 유무와는 교정기간의 차이가 없었다.

결론 : 고혈압을 가지고 있는 환자 또는 이뇨제를 사용한 환자 (특히 thiazide)에서 저나트륨혈증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이들 환자에서 빠른 진단과 교정을 위한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